

## 서도동서원액판하(書道東書院額板下)

1607\_정구(鄭逵) 지음\_98.0×250.0cm



1607년(선조 40) 도동서원을 건립한 정구(鄭逵, 1543~1620)의 글로 사액 현판과 정구가 이황(李滉, 1501~1570)의 글씨를 옮겨 새긴 현판을 함께 걸게 된 사유를 밝혀 두었다. 이 편액을 우러러 보고 김광필(金宏弼, 1454~1504)의 학역을 흠모하며, 도동(道東)의 전통이 오래도록 이어가기를 염원하는 내용이다.

李先生常拳拳致意於金先生書院之建 惜乎其不及於先生之時 以得備於十書院也 文集中 有書院十詠 而只有九書院 不備十數 若在其時 則親題額號 何後焉 諸書院額 多先生所自寫 今者書院重新 而道東嘉命 錫自九重 宣額將下 適又於先生書院之中 得四大字摹刻 送于書院 先師舊筆 聖主寵額 將交映內外 庶幾使學者知所宗範 亦所以成李先生之遺志也 寧不幸歟 凡我入院之士 盍相與觀瞻想慕 深體道東之意 勉勉不已 思所以不墜也哉

萬曆丁未秋七月日 後學西原鄭逵 謹書

이 선생(李先生 이황(李滉))이 일찍이 김선생(金先生 김광필(金宏弼))의 서원을 건립하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가졌으나 안타깝게도 선생의 생존 시에 이 일이 미쳐 이루어지지 않아 열 곳의 서원이 채워지지 못하였다. 문집 속에 「서원십영(書院十詠)」이라는 시가 있으나 아홉 곳의 서원만 있고 열 개의 수효가 채워지지 못했다. 만일 도동서원이 그 당시에 존재하였더라면 액호(額號)를 손수 쓰시는 일을 어찌 여느 서원보다 뒤에 하였겠는가. 여러 서원의 액호는 대부분 선생이 손수 쓰신 것이다.

지금 서원이 중건되어 이름을 도동(道東)으로 하라는 명이 대궐에서 내려오고 뒤이어 판액(板額)이 장차

내려올 예정인데, 마침 또 선생이 쓰신 판액의 글씨 중에서 네 자의 큰 글씨를 찾아서 본을 떠 각(刻)하여 서원으로 보냈다. 이리하여 선사(先師)의 옛 필치와 성주(聖主)께서 하사한 판액이 장차 안팎에서 빛을 발하게 됨으로써 배우는 유자(儒者)로 하여금 무엇을 모범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게 하였으며, 따라서 또 이 선생의 유지(遺志)를 이루게 되었다. 이 어찌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 서원에 들어오는 우리 선비들은 어찌 서로 이 판액을 우러러보고 김 선생의 학덕을 흠모하며, 도동의 의미를 깊이 체득하여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오도(吾道)의 전통이 끊기지 않을 방도를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력 정해년(丁亥, 1607, 선조 40) 가을 7월 후학 서원(西原) 정구(鄭逵)가 삼가 쓴다.

※ 鄭逵, 『寒岡別集』 卷2, 雜著, 「書道東書院額板下」에 수록.

※ 번역 : 『국역 한강집』, 한국고전번역원, 2001